

최애 뮤지션과 1m 거리에서 함께 호흡할 수 있다면

<I'm Live> with Roy Kim

글. 김여명 아리랑국제방송 글로벌콘텐츠협력센터 사원



국내 최고의 뮤지션들이 출연하는 라이브 콘서트 프로그램!

음악가와 팬이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하며,
음악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다

I'm LIVE 아임라이브 소개

내가 가장 애정하는 뮤지션과 불과 1M 거리의 같은 공간에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두근두근..

<I'm LIVE>는 관객으로 둘러싸인 원형의 무대에서, 내가 애정하는 뮤지션과 함께 같은 시공간을 공유하는 아리랑TV 대표 K-POP 음악 프로그램이다. 무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서. 2017년 프로그램의 막이 오른 이후 인기 뮤지션 '10cm', '잔나비', '악동뮤지션', '정승환', '이승윤' 등이 출연하며 약 9년간 관객과 함께 성장해왔다. 아리랑TV <I'm Live>를 거치면 스타가 된다는 기분 좋은 루머가 퍼지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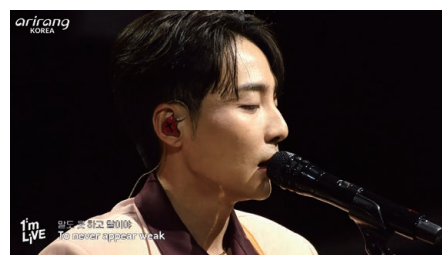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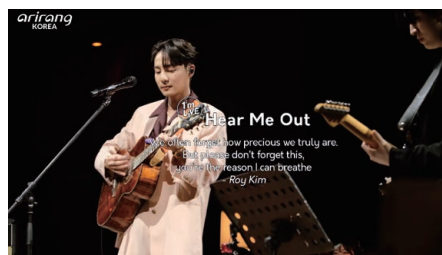
뮤지션의 열정적인 목소리와 생생한 세션의 연주는 물론, 들숨과 날숨이 만드는 거친 숨결까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관객 전용 헤드셋을 착용하면, 눈앞에 라이브 공연이 펼쳐지는 '도심 속 음악 감상실' 마법이 펼쳐진다. 샤랄라.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마침 점심이 끝난 시간, 아리랑TV에서만 볼 수 있으며, 사전 추천제를 통해 선택된 소수의 관객(30:1을 넘는 경쟁률), 뮤지션 그리고 시청자 모두에게 특별한 교감을 선사한다. 만약 놓쳤다면 아리랑TV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무료 VOD를 이용할 수 있다.

I'm LIVE 아임라이브 with Roy Kim

#들어봐

Hear Me O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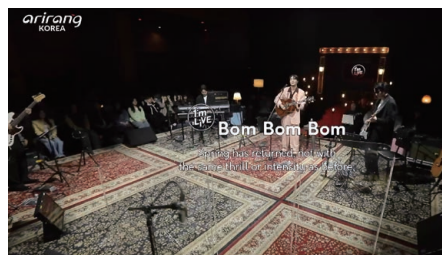


“잊지 말아요. 당신은 날 숨쉬게 하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Please don't forget this, you're the reason I can breathe.”

I'm Live 무대에 등장한 로이킴은 동화 속에서 막 튀어나온 왕자님 그 자체(자체)다. 클래식하지만 산뜻한 딸기 아이스크림 파스텔 핑크 정장과 못 시청자를 유혹하는 깔끔한 외모로 서정적인 무대가 시작된다.(거울을 본다, 거울을 내려둔다.) 그의 자작곡인 첫 곡 '들어봐 (Hear Me Out)'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 떨어진 자존감과 우울감으로 물든 상처받은 현대인에게, 아니 모든 청년에게 속삭이듯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거기에 따뜻하고 리드미컬한 로이킴의 손가락이 전달하는 기타 선율은 1+1 보너스.

#붐붐붐

Bom Bom B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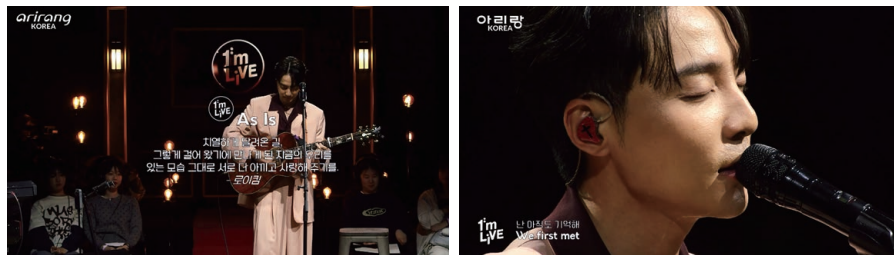
“다시 돌아온 봄은 더 설레지도, 더 뜨겁지도 않지만,
더 깊은 감동으로 다가갈 수 있길.”

“Spring has returned, with the same thrill,
temp and the genuinely touch your soul.”

12년간 로이킴과 함께하고 있는 밴드 소개와 함께 이어지는 그의 대표곡 ‘봄봄봄(Bom Bom Bom)’은 2013년 발표되며 대한민국 봄 계절을 대표하는 스테디한 명곡 중 한 곡이다. 봄이 주는 설렘과 희망 가득 경쾌한 멜로디는 왜 그가 ‘봄’의 왕자인지, ‘봄’이면 왜 그가 떠오르는지, 알고 싶지 않아도 ‘봄’이면 저절로 이해되는 이유가 된다. ‘아임라이브’를 봄, ‘로이킴’을 봄, ‘방송과기술’을 봄.

#있는 모습 그대로

As 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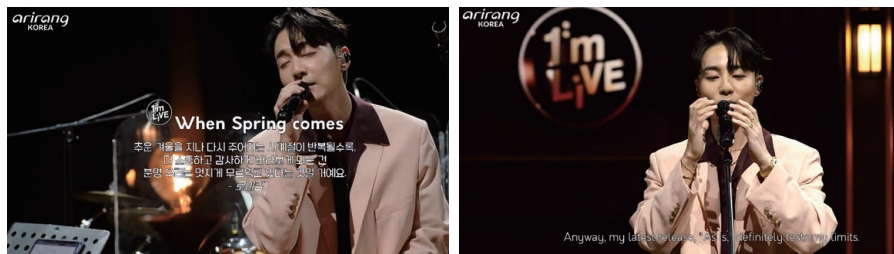


“지금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 더 아끼고 사랑해 주기를.”
“Let’s embrace and love ourselves exactly as we are.”

언제나 빛나기만 하는 로이킴. 그에게도 어리숙한 시작이 있었고, 무명의 세월이 있었다. 물론 길진 않았지만. 인간이라면 모두가 겪었을 그때 그 시절은 서툴지만 순수했고, 꾸밈없이 담백했다. 노래 ‘있는 모습 그대로(As Is)’는 원형무대 전반을 감싼 클래식한 무드의 조명 아래에서 밴드 사운드가 어우러져 완벽한 라이브 공연을 자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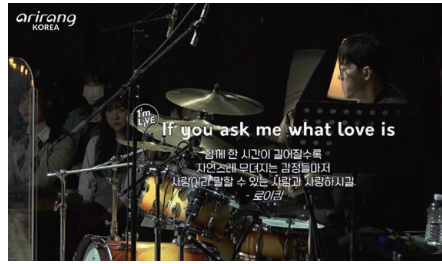
#봄이 와도

When Spring Comes



그가 도전하는 봄이라는 산은 한계가 어딜까. 신곡 ‘봄이 와도’는 지난해 3월 발표된 신곡으로 “봄이 와도 설레지 않을 것”이라는 담담한 감성을 노래한다. 따스한 봄날의 풍경을 연상시키는 이 곡은 독창적이지만 튀지 않는 편곡에 로이킴 특유의 맑고 깨끗한 음색이 관객으로 하여금 봄의 생기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다.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If you ask me
what love is



“자연스레 무너지는 감정들마저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랑할 수 있기를.”

“I hope you find someone who treasures the deeper, calmer and lasting love that follows.”

최근 결혼식 축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은 처음의 설렘보다 익숙함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노래하는 사랑의 속삭임이다. 하지만 속삭임치고는 높은 고음으로 빛어지고 있으니 축가에 유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로이킴은 능숙한 공연 매너와 퍼포먼스로 관객에 대한 배려도 빠트리지 않는다. 무대 뒤쪽에 자리한 관객들과도 눈을 맞추고 공연 중간중간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며 진심을 다해 소통하는 공연의 훈훈함을 선보인다.

I'm LIVE 아임라이브
with Roy Kim
감상평

사전 추천 과정부터 본방송까지 많은 음악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마무리된 이번 에피소드는 봄의 황태자 로이킴의 음악이 가진 위로의 힘을 증명하고 그의 존재감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아티스트는 관객과 더 가까이 교감할 기회를, 시청자는 뮤지션의 진심을 몸소 느끼는 특별한 경험, I'm LIVE. 대한민국 K-POP의 다양성과 깊이를 해외 팬들에게도 소개하는 소중한 창구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하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Wednesday 3PM I'm Live. 



with
Roy Kim

I'm LIVE

